



다솜<사랑>이야기

2005년 10월 8일 제6호

펴낸이 : 교장 최미영

엮은이 : 교사 박은경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 95035 TEL:(408) 934-3600 FAX:(408) 934-1092 Website:www.dasomks.org

다솜 가족들에게

존경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5년 가을 학기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준비된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사는 한인 동포가 현재 약 700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 동포가 200만이 조금 넘습니다. 또 학령기에 있는 5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이 약 40만 정도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40만의 학생 중에서 62,000명 즉 15퍼센트 정도만이 한국학교에 다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무 명 중에 3명 정도만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들의 무관심, 학생들의 반대, 그리고 한국학교 교육 제도의 부재 등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바로 그 15퍼센트에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성이 있고, 학교가 있으며, 준비된 선생님들이 계시니 매우 축복받은 학생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솜이 개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랑과 열성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로 인하여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03명의 학생이 등록하였고 올해에 들어서 SATII 한국어 정규반과 유아반도 신설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재미한국인으로 또 바른 기독교인으로 자라나 앞으로 어디에서 살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다솜의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성심껏 돕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뜻은 우리 학생들을 바르게 자라도록 교육시키려면 학교와 선생님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님을 비롯하여 이 사회, 교회의 어르신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와 같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8일

다솜 한국학교장 최 미 영 드림

배우며 가르치며 (연수후기)

교사 박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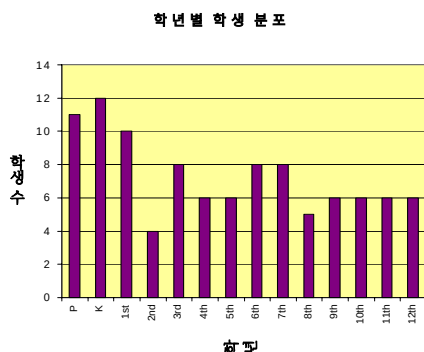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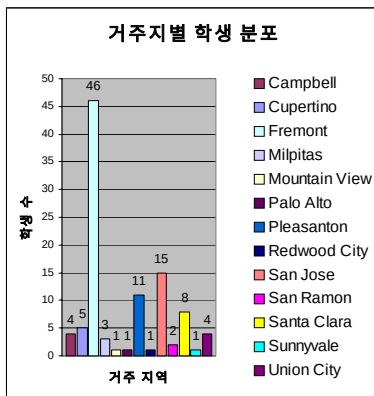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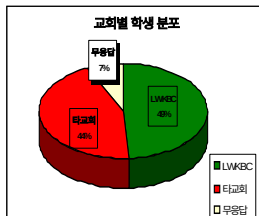
지난여름, 저는 다솜 한국학교 선생님들 6분과 함께 Houston, Texas에서 개최된 NAKS 학술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한중일 역사전쟁,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문제 등을 본국 저명인사들의 주제 강연을 통해 민족 주체성에 관한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 줄을 서야 들을 수 있었던 종이접기 강연, 휴식시간까지 반납하며 춤사위에 빠져 있었던 부채춤 강연, 흥겨운 사물놀이 등의 문화 강연은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음악, 문학, 시청각, 한자, Thinking

Maps를 이용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한국어 교수방법을 배우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게 가장 감명 깊었던 행사는 학술대회와 동시에 개최된 제1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였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을 나누어 주는 댄서가 되고 싶었던 춤의 요정,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우고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아주는 것이 꿈이라던 녀석들은 남학생, 자기가 나눌 수 있는 모든 시간, 지식, 음악적 재능, 따뜻한 마음을 나누겠다던 다부진 꿈들을 가진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소망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다솜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학교 및 학급 현황



☺ 학급담임 및 학부모대표

반 이름	담임교사	학부모대표(학생이름)
병아리반	박미경, 황현경	황화신(솔희 태버나)
옥수수반	방은주, 주인규	임은진(임종헌)
개나리반	임지민	임숙희(셋모키)
봉숭아반	백지현	김혜준(김태연)
해바라기반	김의진	박그레이스(박미소)
민들레반	정은경	전혜순(전효정)
진달래반	박은경	김민희(김우건)
무궁화반	김희재	김수려(김형우)
SATII 한국어	장혜경	김 선(김예린)

◎ 10월의 행사 및 광고

- ◀ 특활이 있는 날 : 10/1, 10/15, 10/29
- ◀ 아침 조회가 있는 날 : 10/22
- ◀ 북가주 한국학교협의회 교사연수회 : 10/8
시간-오후4시, 장소-산마테오 한국학교
- ◀ 구연동화대회 : 10/29
시간-오후4시, 장소-세계선교 침례교회
- ◀ SAT II 한국어 본고사 : 11/5
- ☛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점심봉사(9월) : 전효정, 김대경/태연 부모님
10월 : 김민하, 솔희, 홍서영/서현 부모님
- ☛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10/22 본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습니다.
주차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양해바랍니다.



생일 축하해요

9월 : 김현지, 김형준, 방수환, 원수빈,
장선진, 홍희연

10월 : 김다영, 김수영, 김연주, 김형우,
송유빈, 이유준, 이형진, 전효정,
정소희, 조현희, 홍소연



행복한 교실 이야기



병아리반 (박미경 선생님)

삐약삐약...안녕하세요? 우리는 병아리반입니다. 먼저 병아리반을 맡아서 일 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참 기쁩요. 저희 병아리반은 3.5살짜리 아이들부터 4살 어린이로 여자아이들이 8명, 남자아이가 3명, 그래서 합이 병아리 열하나랍니다. 언제나 웃고 있는 서현이, 선생님 선생님의 하은이, 신데렐라를 좋아하는 하나, 조금 수줍어하는 예린이, 이쁜이 솔희, 햇살같은 혜은이, 골목대장 선진이, 간돌이 혁이, 과묵한 사나이 재민이, 나도 알아요 혜민이..... 너무나 귀엽고 깜찍한 병아리들입니다. 어떠세요? 활기가 넘치고 병아리들의 삐약거리는 소리가 마구마구 들리는 것 같지요? 일 년 동안 우리 병아리들한테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보다 흥미롭게 소개하고, 한글 학습을 재미있는 놀이와 활동을 통해서 가르침으로서 토요일마다 오고 싶은 수업 시간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삐약 소리 나는 병아리반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개나리반 (임지민 선생님)

지난 봄 학기 환상적인 반을 구성했다던 옥수수반 아이들이 모두 개나리반으로 올라왔다. 이런 경우가 바로 호박이 낱쿨째 굴러들어 왔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지난 1년 옥수수반 아이들을 잘 길러주신 방은주 선생님께 감사할 뿐이다. 9월 첫 수업 시간에 다송 한국학교를 그렸다며 살며시 전해주는 민하, 지난 주 "선생님 사랑해요" 말하며 안기는 혜리..... 모두들 보듬어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개나리반 아이들이다. 1년 뒤 기념으로 주려고 첫 시간 한 명씩 아이들 모두의 사진을 찍었다. 내년 봄 학기를 마쳤을 때, 지금의 이 아이들이 몸과 마음 뿐 만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자랐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민들레반 (정은경 선생님)

저희 민들레반은 여학생 아홉 명에 남학생 네 명으로, 여학생이 훨씬 더 많은 반이지만, 남학생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움직임으로 인해서 양전하고 말 잘 듣는 저희 반 여학생들을 더욱 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컴퓨터 숙제를 먼저 올린 덕분에 제일 먼저 스티커를 받고 기뻐했던 대경이, 결석하는 날과 간식당반이 겹쳐서 간식을 준비 못 할까봐 걱정하는 배려

많은 민지, 의젓하고 차분하게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연주, 계속 움직이지만 창의성이 번뜩이는 형규, 성실하고 양전하지만 발표할 때는 꼭 하고야 마는 수빈이, 혼자서 자기 일을 척척 해내는 승현이, 매사에 모범이 되는 성실하고 착한 현준이, 새천년 건강체조할 때 책상 밑 어딘가에 숨어 있지만 언제나 컴퓨터를 작동시켜 주고 가는 귀염둥이 재인이, 모르는 것을 지나치지 않고 질문을 하는 체조의 여왕 정은이, 공부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성격 좋은 효정이,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치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샤론, 어려운 컴퓨터 숙제도 척척 잘 올리고 워든지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기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흥미를 갖고 있을 정도로 컴퓨터에 능숙한 공부 잘하는 연정이.....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계속 공유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가르치는 일이 어려워지니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학교에서의 시간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저희 반 학생들과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무궁화반 (김희재 선생님)

어떤 아이들이 우리 반일까 하는 궁금증과 오랜만에 한국학교 교사로서 강단에 서는 부담감이 있었는지 전날 밤 잠을 잘 자지 못했다.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어렸을 때 몇 년을 한국학교 교사로서 봉사한 이후 나보다 덩치들이 더 커진 고급반 학생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주님께 아이들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드린 지난 몇 날들이 헛되지 않았는지 첫 시간 아이들과 정말 좋은 수업 시간을 가졌다. 모든 학생들이 부모님들로부터 등 떠밀려 왔기에 우선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하지만 재미있는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아이들의 말문이 터졌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동안 어색함이 없어져갔다. 그래도 이제 모두들 고등학생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SATII 한국어 시험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지 모의 SATII 한국어 시험을 통해서 개인 능력 평가를 대신하였더니 생각보다 아주 진지하게 시험을 대해 주어서 얼마나 예쁜지 마음이 무척 기뻐다. 50분간에 걸친 시험 결과 두 명의 학생이 80 문항 중 각각 71, 60개를 맞추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독해 부문 15문제 정도를 답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어법에 관한 문항에서 생각할 시간이 모자라서 틀리거나 못 푸는 것 같다.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길 소원하며..... 무궁화반 FIGHTING!!!



우리들의 이야기



무궁화반

오세진의 새학년 목표

1. 스케이트보드를 더 잘 타고 싶습니다.
2. 한국 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3. 한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4. 부모님 말씀을 더욱 잘 듣겠습니다.
5.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다니겠습니다.
6. 우리 토끼를 더욱 더 잘 돌보겠습니다.
7. 평균 'B'를 받는 것입니다.

윤민섭의 새학년 목표

1. 책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해요.
2. 한국 학교에서 더 잘 하려고 해요.
3. 공부를 더 잘 하려고 해요.
4. 한글 숙제를 하려고 해요.
5. 덜 놀려고 해요.
6. 새 친구를 만들려고 해요.
7. 아침을 먹으려고 해요.
8. 동생에게 잘 해 주려고 해요.
9. 기도를 꼭 하려고 해요.
10. 일찍 자려고 해요.

진달래반

이호윤의 새학년 목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잘하겠어요.

교회에 잘 가겠어요.

성경공부를 잘 하겠어요.

조현희의 새학년 목표

부모님께 대하여 의젓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어요.

숙제를 빨리 하겠어요.

방을 깨끗하게 쓰겠어요.

홍소연의 새학년 목표

친구(이웃)들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들이랑 잘 놀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주겠어요.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와 용기를 주겠어요.

아! 가을인가

(가을이면 생각나는 것들)

덕수궁 돌담길의 노란 은행나무
피츠버그의 가을 산
사과밭 (최미영 교장선생님)

1. 누렇게 익은 '벼'
2. 지붕 위에 걸터 앉은 누런 '호박'
3. 절구에서 찢어지는 '빨간 고추'
4.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어우러져
맘껏 즐기는 가을 '운동회'
5. 가을 바람에 살랑이는 한들한들 '코스모스'

정은경 선생님

단풍, 새 학년, 추석,
추수감사절, 칠면조, 송편
(민들레반 이현준)

귀뚜라미, 단풍,
벼이삭, 파란 하늘,
추수감사절
(민들레반 김대경)

엄마 ; 높고 푸른 하늘
황금들판과 허수아비
한가위 보름달
갈대밭
국화, 코스모스

송수빈 ;
빨간 단풍잎, 노란 은행잎
주황 호박
추수, 낙엽
맛있는 감, 밤

송유빈 ; 갈색
언니생일(11월11일)
추수감사절, 단풍
송편, 옥수수

단풍, 추석, 송편, 감, 밤,
소풍, 빨간고추, 코스모스,
터키, 고추잠자리, 낙엽
(민들레반 최기원)

코스모스, 추석, 단풍,
할로윈 분장, 밤, 감,
송편 (민들레반 최연정)

단풍, 추수, 독서,
하늘, 낙엽
(진달래반 이태형)